

제 4 장: 지정학적 코드의 표상

Colin Flint,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Geopolitics) 제 4 장

Tran Tung Ngoc

인문지리학과 박사과정

요약

1. 문제의식: 코드에서 표상으로

제 4 장은 지정학적 코드가 어떻게 정당화되고 표상(representation)되는가를 다룬다. 저자의 출발 명제는 간명하다. 지정학적 코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결정과 행동이 정당화되는 방식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가 왜 ‘위협’이며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자국 국민과 국제공동체 모두에게 납득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정학은 정치적 현상인 동시에 문화적 현상이다. 이 장의 과제는 지정학적 폭력행위, 곧 전쟁수행이 어떻게 ‘국가의 물질적 이익과 가치관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묘사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저자가 명시하는 장의 목표는 여섯 가지다. ① 지정학적 코드의 문화적 측면, ② 정당화의 방식, ③ 대중문화와 외교정책의 연계, ④ 오리엔탈리즘 개념, ⑤ NSC-68 해석에서 대중문화의 역할, ⑥ 두 사례 연구(후세인의 1990 년 쿠웨이트 침공,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2. 전쟁의 두 언어 — 물질적 이익과 가치관

논의의 출발점은 1969 년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이른바 ‘축구전쟁’이다. 월드컵 예선 두 경기, 18 세 소녀 아멜리아 볼라니오스의 자살과 국가장(國家葬), 국경 폐쇄, 그리고 100 시간의 전쟁. 결과는 사망 6,000 명, 부상 1 만 2,000 명, 이재민 약 5 만 명이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국가적 금지’라는 가치가 전쟁을 일으킨 사례로 읽힌다.

그러나 저자는 이 표면적 독해가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이해’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 배후에는 14 개 가문이 토지를 독점한 엘살바도르의 구조, 국경을 넘어 온두라스에 정착한 30 만 명의 엘살바도르인, 토지개혁을 회피하면서 대신 이주민의 토지를 재분배하겠다고 제안한 온두라스 정부의 계산이 있었다. 요컨대 토지 박탈 · 독점 · 인간 존엄 · 민란의 공포라는 ‘국내적’ 문제들이 허술한 국경을 가로질러 국제적으로 뒤엉킨 것이다. 축구로 인한 모욕은 정치적 화약통에 불을 붙인 도화선에 불과했으며, 두 정부에게는 국내적 현상유지를 바꾸는 것보다 국제전쟁이 훨씬 분명한 해결로 보였다.

여기서 저자는 전쟁 원인에 관한 두 고전적 입장을 병치한다. 레닌(1939)에게 전쟁은 은행과 이익집단을 위해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의 표현, 곧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다. 반면 소로킨(1937)에게 전쟁은 경쟁하는 가치관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저자의 입장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두 가지는 참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개의 주제이며, 이 장의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해석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표상의 양상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 대목에서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명제가 제출된다. 물질적 이익에 기초한 전쟁 표상은 영토적(territorial)이며, 가치에 호소하는 표상은 비영토적(non-territorial)이다. 전자는 핵심자원에 대한 접근과 경제적 위치의 장악을 말하고, 후자는 특정 영토에 한정되지 않은 채 ‘인류를 위한 최선’ 또는 ‘상식적’ 비전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화씨 9/11」의 자본주의적 탐욕 논리와 부시 대통령의 ‘자유’ 수사는 바로 이 두 문법의 대립을 보여준다.

3. 문화적 전쟁: 감정의 동원과 정상화

저자는 윌프레드 오언의 시 「Dulce et Decorum Est」(1917, Box 4.1)를 통해 민족주의의 낭만적 신화와 개인적 죽음의 야만성을 대비시킨다. 독가스로 폐가 파괴되어가는 병사의 죽음 앞에서 ‘조국을 위한 희생은 달콤하고 명예롭다’는 명제는 ‘그 오래된 거짓말’로 명명된다. 퍼셀(Fussell, 1989)의 관찰처럼 죽어가는 젊은 병사들의 마지막 절규는 대개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가 곧바로 덧붙이는 반전이 중요하다.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유럽과 영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열광적으로 전쟁을 환영했고 입대를 위해 줄을 섰다. 오언의 냉소주의는 사후적이며 전선 경험의 산물이었다. 표상은 사건에 선행하기도 하고 사건에 의해 뒤집히기도 하는 것이다. 이어 검토되는 나치즘에서는 ‘나치’가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약자라는 사실 자체가 단서가 된다. ‘국가’와 ‘사회주의’, 곧 감정과 물질이 히틀러의 이데올로기에서 강력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수사학적 강점은 독일 국민의 과거와 미래의 영광을 서사화함으로써 현재의 물질적 불만을 이념적 미래와 연결하는 능력에 있었다.

이 절의 결론은 다음 명제로 압축된다.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지정학을 ‘정상화(normalize)’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들’은 불가피한 싸움에 나선 영웅으로, 적 또는 ‘그들’은 사악하고 비열한 존재로 묘사된다. 그리고 점차 ‘그들’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되고, 전쟁수행 과정에서 죽음은 관심 밖으로 사라진다(Gregory, 2004).

4. “내가 지정학자라고?” — 상식으로서의 지정학적 지식

Box 4.2의 낱말연상 실험(미국 · 북한 · 프랑스 · 콜롬비아 · 아프가니스탄 · 중국 · 터키 · 이라크 · 일본 · 콩고민주공화국 · 파키스탄 · 대영제국)은 이 장에서 가장 교육적인 장치다. 국가명을 듣고 즉각 떠오르는 단어를 적게 한 뒤, 저자는 세 가지를 묻는다. 그 이미지의 출처는 무엇인가, 그 이미지는 사회의 특정 집단(성별 · 인종 · 계층)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그리고 그 이미지는 자국의 외교정책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실험의 목적은 우리가 사실상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한 ‘지식’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폭로하는 데 있다. 그 출처는 할리우드 영화와 텔레비전, 그리고 노래 · 농담 · 코미디 같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들이다. 저자는 어린 시절 들었던 이중창 가사(“영국인이 최고다”)와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아일랜드 농담’을 자전적 사례로 든다. 저녁의 ‘가족 오락’에 불과했던 것이 은연중에 자국의 우월성이라는 신념을 주입했고, 그것이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타국에 지시할 수 있다는 영국의 ‘권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놀이터와 버스정류장, TV 앞 소파가 지정학적 이해의 결정적 장소라는 지적이 이 장 전체의 주장을 압축한다.

그람시적 권력 개념으로 재정식화하면, 지식의 힘은 두 곳에서 나온다. 하나는 그것이 당연한 ‘상식(common sense)’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정당화에 활용되는 ‘이상’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세계를 ‘무정부상태’로 보는 상식 위에서는 르완다에 대한 불개입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개입이 서로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다.

5. 코드의 대중적 번역: 할리우드와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

제 3장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코드를 정의한 문헌으로 소개된 NSC-68은, 저자의 표현대로 “1950년에 미국에서 잠자리에서 읽을거리는 아니었다.” 따라서 코드는 더 호소력 있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어야 했다. 이 절은 그 번역 장치 두 가지를 분석한다.

(1) 할리우드 성서 대작: ‘해방’과 ‘호혜적 우위’

『십계』, 『쿠오바디스』 등 성서·로마 배경의 대작들은 ‘중동’에 관한 매우 특정한 비전을 유통시켰다. 중동은 성스러운 땅으로 묘사되었고, 특히 노예제와 남녀관계가 강조되었다. 매컬리스터(McAlister, 2001)의 분석에 따르면 이 영화들의 서사 구조는 일정하다. 아름다운 여성은 전체적·야만적 사회의 노예제 희생자이며,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남성 영웅에 의해 ‘해방’된다. ‘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백히 지정학적 뉘앙스를 지닌다. 그러나 해방된 여주인공은 대안사회를 건설하지 않는다. 그녀는 영웅의 부인으로서 기꺼이 복종적 역할을 맡는다. 폭정 이후에는 ‘선택에 의한 지배’가 온다는 것이다.

이 성차별적 논리를 통해 영화는 올바른 결혼과 ‘자유롭게 선택한 복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그 복속관계를 미국과 탈식민 중동 국가 사이의 모델로 제시한다. 매컬리스터가 미국의 힘을 규정한 표현이 이 대목의 핵심이다. 직접적 식민 지배라는 낡은 모델을 대신하는 ‘호혜적 우위(benevolent supremacy)’. 영화 속 ‘노예제’가 소련 팽창의 위협과 유럽 식민주의의 속박이라는 두 겹의 함의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리더십은 과거의 속박을 끊으면서 또 다른 명예를 방지해준다. 그러나 해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이지만 약자가 원한 것이므로 도덕적 관계가 된다.

(2) 『리더스 다이제스트』: 개인화된 지정학

샤프(Sharp, 2000)의 연구를 따라 저자는 20 세기 미국 대중잡지가 어떻게 국가의 지정학적 임무를 개별 시민의 일상과 연결했는지를 추적한다. 1922 년의 한 기사는 그리스 예술과 로마의 법 정신을 위대한 국민의 이상주의로 규정한 뒤, 미국이 ‘국민적 인도주의’를 통해 세계 이상주의에 독자적으로 기여했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세계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정부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적 특성’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NSC 나 국방부, 대통령뿐 아니라 개개 미국인에게도 지정학적 역할이 부여된다. 잡지는 공간을 서로 엮어 지정학적 축도를 그림으로써, 먼 곳의 전투를 사회조직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재구성한다. 한국전쟁과 베를린 위기는 미국의 국민적 특성이 낳은 임무의 필연적 결과로 서술되고, 냉전은 미국의 인도주의와 소련의 전체주의 사이의 가치 대결로 정의된다. 외국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네브래스카에서 농부·교사·점원으로 일하든, 모든 미국인이 지정학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탈냉전기에는 위협이 내부화된다. 표 4.1 이 보여주듯 러시아·공산주의 관련 기사가 감소하는 자리를 ‘국내적 위협’이 급격히 채운다.

위협 의 범주	1966-68	1989-91	1992-94	추세
러시아와 공산주의	48	50	34	감소
테러	6	8	1	감소
마약	13	19	5	감소
일본 / 경제	7	9	10	유지
국내적 위협	27	51	76	급증
미국적 가치	13	11	25	증가

자료: Sharp(2000). ‘국내적 위협’은 큰 정부의 관료적 영향력과 ‘정치적 정당주의(political correctness)’의 확산을 가리킨다.

1994년 잡지는 야만인들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다고 선언한다. 놀랍게도 그 야만인은 미국 연방정부 자체와 그것이 낳은 의존의 문화였다. 충실한 독자라면 이것이 초기 반공 논의의 연장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정부의 개입(또는 공산주의의 수준)이 도덕적 파탄을 낳는다는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6. 오리엔탈리즘: 지정학적 세계관의 심층 구조

앞의 사례들이 개별 미디어의 분석이었다면, 이 절은 그 배후의 문화적 구조를 다룬다. 사이드(Said, 1979)의 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 문화를 ‘미개·후진·야만·원시’로 그리는, 정부·학계·문화계에 걸쳐 제도화된 묘사 체계를 가리킨다. 사이드는 19세기 영국 소설을 분석했으나, 저자는 그 분석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생산·유통되는지를 다루는 다수의 연구에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오리엔탈리즘이 힘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표상 능력의 비대칭이다. 서양 미디어의 아프리카 묘사는 영향력이 크지만 유럽과 미국에 대한 아프리카의 표상은 그렇지 못하다. 둘째,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의심받지 않으며, 도전받지 않는 지식의 권위는 특정 외교정책 입장을 허용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한다. Box 4.2의 낱말연상이 성립하는 기초가 바로 이것이다. ‘북한’을 들으면 ‘핵무기’가 떠오르는 식이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사이드 논의의 양면성이다. 비서구인을 ‘후진적·미개한’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동시에 서구를 그 정반대, 곧 ‘근대적·문명인’으로, 따라서 지구의 ‘자연적’ 지배자로 규정하는 자기서술이다. 이 자화상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다. 제국 지배에 필요한 잔혹한 정보와 압제조차 원주민을 ‘훈육’하고 ‘개화’시키는 불가피한 행동으로 재해석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가정교육의 철학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의 공식적 종말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카플란의 『다가오는 무질서 상태』(1994), 버나드 루이스(2002), 그리고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1993)이 그 현대적 계승이다. 헌팅턴은 세계를 8개 문명권으로 분류하고 ‘갈등적 내부와 더욱 갈등적인 국경선들’ 때문에 이슬람 세계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자는 키오차(Chiozza, 2002)의 통계적 분석을 들어 이슬람과의 관련성이 전쟁 가능성을 특별히 높이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뼈아픈 한 문장을 덧붙인다. “학술지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배운 사람은 TV 해설과 신문 논평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식’과 『인디애나 존스』에서 세계를 배운다.

현대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음흉한 측면은 사람을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레고리(Gregory, 2004)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에서 언어가 결정적으로 변했다. 이라크인은 언급되지 않거나, 문명규범 바깥에 있어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야만인’으로 묘사됨으로써 비인간화되었다.

가상전쟁: 성적표 없는 전쟁

위성영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신문사의 쌍방향 웹사이트는 서양의 시청자를 ‘텔레비전 전쟁’의 가상 참여자로 만들었다. 바그다드를 검색하고 ‘세부’ 목표물을 지정해 폭격 전후 사진을 비교할 수 있지만, 영상은 인간의 고통과 학살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그레고리의 표현대로 보통 사람은 도시를 군사 목표물로 계속 좁혀 나가며 결국 그 파괴에 공모할 수 있으면서도 신체적 개입의 근접성은 회피할 수 있다. 지정학은 악당을 죽이는 컴퓨터 게임이 되었으며, 희생자가 가공인물이 아니라는 차이만 남았다.

동시에 죽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 침공과 후속 내란에서 미군은 과거의 관행과 달리 적군·민간인 사망자 수를 추산하지 않았고, “우리는 전투를 성적표로 보지 않는다”는 공언이 그 태도를 요약한다. 그러나 전자적·지구적 미디어의 시대에는 대안적 해석도 존재한다. 알자지라는 아랍세계 전역에 이라크의

학살 영상을 방송했고, Box 4.3의 ‘리버랜드’라는 이라크 여성의 블로그는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의 붕괴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기록했다. 사이드가 서술한 19세기적 상황은 이 점에서 분명히 달라졌다. 그러나 저자는 중요한 단서를 단다. 오리엔탈리즘의 유산은 방송 능력이 아니라 편집과 해석에 있으며, 이 점에서는 서구 강대국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 CNN·BBC·ITN 이외의 출처에서 온 영상은 ‘선전 영화’로 쉽게 폐기되거나 ‘적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도되기 때문이다. 데어 데리안(der Derian, 2001)이 지적하듯 기술 변화와 함께 지정학적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구분은 흐려지고 있으며, 대중은 이제 표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창조의 적극적 조력자다.

7. 사례 4.1: 후세인의 아랍 민족주의와 이슬람 활용(1991)

저자는 아랍 민족주의를 두 갈래로 정리한다. 하나는 나세르가 대표하는 통합주의로, 외부 압제에 대한 저항과 아랍세계의 평화·번영을 의제로 삼은 근대적·세속적 기획이며 1958~61년의 통일아랍공화국이 그 산물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아랍국의 독립 주권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실제로 아랍 민족주의의 지리적 범위는 분리된 국가이익에 맞춰져 왔다. 그럼에도 통일된 아랍세계라는 관념은 중동 정치의 배경으로 계속 존재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1967·1973년의 패배가 남긴 ‘민족적 모욕’이 그 관념을 지속시킨 동력이었다.

이라크와 시리아가 공유한 바트당 이념은 유럽 좌파에 철학적 기원을 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이었고, 아랍세계의 세속적 근대화를 목표로 했다. 저자가 강조하듯 초기 바트당 철학은 보수적 이슬람 근본주의와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이 사실이 이후 후세인의 수사학적 전환을 흥미롭게 만든다.

이란-이라크 전쟁(1980~88)은 미국의 지원 아래 수행되었고 교착으로 끝났으나, 후세인은 이를 ‘승리’로 선언했다. 정치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쿠웨이트와의 국경 분쟁을 부각하며 아랍 민족주의 수사를 동원한다. 그의 영토 논리는 쿠웨이트가 바스라의 관할 아래 있던 오스만 영토의 일부였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그릇된 역사 해석으로 평가한다. 오스만의 쿠웨이트 통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19세기 말 영국이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부설을 저지하기 위해 쿠웨이트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바스라의 종착역화를 차단했던 것이 실제 경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인의 관심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세계 4위의 매장량을 지닌 석유였다.

이 사례의 분석적 핵심은 물질적 코드가 두 겹의 가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첫째는 아랍 민족주의의 언어다. 이란과의 전쟁을 모든 아랍인을 위해 치렀으므로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빛을 지고’ 있다는 주장, 석유수익을 해외에서 부도덕하게 낭비하는 쿠웨이트 엘리트라는 규정, 그리고 쿠웨이트 유전은 모든 아랍인의 것이라는 선언이 그것이다. 저자가 인용하는 언어유희 — 부(tharwa)에 대한 혁명(thawra) — 은 이 전환의 수사학적 압축이다. 둘째는 종교의 언어다. 미군의 사우디 주둔이 시작되자 후세인은 전쟁을 시온주의와 식민주의의 위협에 맞선 이슬람 방어로, 임박한 미국과의 전쟁을 새로운 ‘십자군’에 대한 대항으로 재정의했고, 팔레스타인의 고통까지 자신의 메시지에 담았다.

주목할 것은 청중에 따라 언어가 갈린다는 점이다. 12월 10일 바트당 성명은 주로 세속적 아랍 민족주의의 언어로 쓰였고, 8월 24일 바그다드 라디오의 ‘무슬림 단결의 필요성’ 방송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히로시마·나가사키와 베트남·한국전쟁의 기억까지 동원했다. 하나의 지정학적 코드가 복수의 표상 체계로 번역되는 것이다. 전후 남부 시아파와 북부 쿠르드의 봉기는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연합군은 쿠르드 난민의 참상을 목격한 뒤에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스라엘로 발사된 미사일 역시 실질적 위협이라기보다 ‘팔레스타인 해방자’라는 역할을 선전하기 위한 이념적 행위였다는 평가가 이 사례의 논지를 재확인한다.

8. 사례 4.2: 2003 년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의 표상화

2003 년 미국이 제시한 명분은 알카에다와의 연계, 그리고 45 분 내에 배치 가능한 ‘대량살상무기’였다. 저자는 이 주장의 진위와 이후의 철회를 정치사의 문제로 괄호에 넣고, 침공을 세계 리더십 표상의 사례로만 다룬다. 세계 지도국은 자신의 군사행동을 타국의 그것과 다르게 표현해야 하며, 그 작업은 두 층위로 이루어진다. 첫째, 세계적 역할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가장 날카로운 관찰이 나온다.

“이라크 침공의 경우, 질문은 미국이 침공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지 미국이 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있느냐는 아니었다”.

논쟁의 무대 자체가 이미 개입의 권리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뜻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장이 말하는 ‘상식’의 작동 방식이다. 둘째, 침략의 근거는 세계 리더십의 도덕적 메시지와 연계되어야 한다.

9·11 사건 이후의 연설들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행동할 권리 또는 의무를 반복 확인했고, 그 정당화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언어로 이루어졌다. 저자가 인용하는 백악관 발언들은 악당의 제거, 그들에 숨은 테러범에게 비추는 ‘정의의 빛’, 지구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선언, 그리고 전 세계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이라는 형상을 반복한다. 법무부장관 애슈크로프트는 미국을 ‘문명’과 ‘정의’에 직접 동일시켰고, 국무부장관 파월은 테러와의 전쟁이 민주주의 프로그램·사법개혁·분쟁해결·빈곤구제·경제개혁·보건교육 지원과 함께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여기서 NSC-68 과의 깊은 유사성을 지적한다. 매우 모호하지만 어쨌든 정의된 위협(‘테러리즘’), 보편의 외양을 띠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비전인 ‘정의’와 ‘문명’, 그리고 타국 내부에 정치·교육·경제의 제도와 방법을 건설하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린스펠드가 인터뷰에서 말한 세계를 ‘재조정할 기회’라는 표현에 대해, 저자는 알자지라의 영상과 리버벤드의 블로그가 기록한 바그다드야말로 그 재조정의 결과였다고 응수한다.

이 절이 도출하는 세계 리더십 표상의 논리 연쇄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세계적 역할은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세계 리더십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지정학적 행동은 미국에게 물질적 이득을 제공한다.
- 그 이기적 이익은 세계 전체에도 똑같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 그 이득은 물질이 아니라 가치의 언어로 정의된다.
- 리더십의 수행은 타국 내에 제도와 프로그램을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 그 임무의 수행에는 군사적 주둔이 필요하다.
- 그에 대한 적극적 저항은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많은 군사개입의 기회를 부여한다.

9. 결론: 사실이 아니라 표상

저자는 이 장이 ‘사실’이 아니라 표상들을 논의했음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전쟁의 계산이 석유 확보 같은 물질적 이득을 향할수록, 정부는 특히 방어가 아닌 공세의 경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치와 관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의 지정학적 코드를 정당화하려면 국내와 국외라는 두 층위의 청중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며, 세계 지도국은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세계를 설득해야 하는 추가적 부담을 진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모델스키의 세계 리더십 순환 모델과 코드 분석을 결합할 때의 두 가지 이점을 정리한다. 첫째, 국가가 리더십 순환의 국면을 통과하면서 기회와 제약이 변하고 그에 따라 코드와 표상 수단도 변한다는 구조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둘째, 모델에 내재한 힘의 불평등에 따라 코드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건도 위계적으로 달라진다. 지도국은 세계적 임무를 표상화할 고유한 수단과 요구를 갖고, 나치 독일 같은 도전국은 지도국에 대한 도전으로서 코드를 정의하며, 도전국이 되기에 너무 약한 대다수 국가의 코드는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을 반영한다.

핵심 개념어 (Key Terms)

표상(representation) —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의미화되어 제시되는 방식. 이 장의 분석 대상.

정당화의 이중 청중 — 지정학적 코드는 국내 국민과 국제공동체 양쪽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

물질론 / 가치론 — 레닌(제국주의적 물질) vs 소로킨(경쟁하는 가치). 배타적 대립이 아니라 두 개의 정당화 주제.

영토적 / 비영토적 표상 — 물질적 정당화는 영토 · 자원에 결부되고, 가치 기반 정당화는 특정 영토를 넘어 ‘인류’를 말한다.

정상화(normalization) — 문화가 지속적인 지정학적 실천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작용.

상식(common sense) — 그람시적 의미. 의심받지 않기 때문에 힘을 갖는 부분적 · 애매한 세계 지식.

오리엔탈리즘 — 비서구를 미개 · 후진 · 야만으로 그리는 제도화된 묘사 체계이자, 동시에 서구를 근대 · 문명으로 규정하는 자기서술.

호혜적 우위(benevolent supremacy) — 직접적 식민 지배를 대체하는 미국식 지배 양식. 해방에 이어 ‘보호’를 부여한다.

비인간화 / 비가시화 — 적을 ‘야만인’으로 묘사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썸에서 제거하는 것.

가상전쟁 — 위성영상 · 시뮬레이션 · 쌍방향 웹을 통해 시민이 신체적 근접성 없이 파괴에 공모하게 되는 조건.

편집과 해석의 우위 — 표상 생산 수단이 확산된 뒤에도 남는 실질적 권력. 대안 영상은 ‘선전’으로 분류된다.

세계 리더십 순환 — 모델스키. 순환의 국면과 힘의 위계에 따라 코드와 표상 수단이 달라진다.

발제 내용

제 4 장은 지정학을 ‘무엇이 사실인가’의 문제에서 ‘무엇이 어떻게 말해지는가’의 문제로 옮겨 놓는다. 이 이동은 생산적이지만 몇 가지 미해결의 지점을 남기며, 동시에 저자가 다루지 않은 지역과 시기로 확장될 여지를 준다. 아래에서는 네 가지 논점을 제안한다.

1. 표상 분석의 자기모순을 바라볼 때 실증은 어디에 놓이는가

저자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반박하기 위해 키오차(2002)의 통계 분석, 곧 이슬람 관련성이 전쟁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는다는 실증 결과를 동원한다. 그러나 이 장의 전제는 지정학이 ‘사실’이 아니라 표상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표상 분석이 특정 표상을 기각하기 위해 실증적 검증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상대화한 인식론에 부분적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이 긴장은 결함이라기보다 표상 연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분업의 문제로 보인다. 표상 분석은 어떤 서사가 유통되는가를 밝히지만, 왜 어떤 표상은 정책이 되고 어떤 표상은 되지 못하는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모두 ‘성공한 표상’의 사후적 재구성이며, 기각된 표상이나 실패한 정당화는 표본에 들어 있지 않다. 표상과 정책 사이를 매개하는 조건, 즉 관료적 수용 경로, 미디어 소유구조, 선거 주기, 위기의 타이밍을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이 연쇄가 설명력을 갖는다.

2. 오리엔탈리즘의 비서구적 변용: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서구/비서구라는 이분법 위에 서 있으며, 저자 역시 이 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이 축이 굴절되는 지대다. 제국 일본은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조선·대만·만주에 대해 그 문법을 재생산한 이중적 위치에 있었다. 식민사학의 개념들 즉 정체성론(停滯性論), 타율성론(他律性論), 반도적 성격론은 저자가 정리한 사이드의 양면성 논리와 정확히 대응한다. 조선을 ‘정체’와 ‘타율’로 규정하는 행위는 그 대칭항으로 일본을 ‘근대’와 ‘자율’로 규정하는 자기서술이었고, 그 위에서 병합과 동화는 훈육이자 개화로 재의미화되었다. 나아가 ‘대동아공영권’은 이 장의 개념틀로 정확히 읽힌다. 자원과 시장이라는 영토적·물질적 이익이 ‘아시아의 해방’, ‘팔굉일우(八紘一宇)’¹라는 비영토적 가치 언어로 전환된 것이며, 이 구조는 후세인이 유전 지배를 아랍 민족주의와 이슬람 형제애로 전환한 방식과 형식적으로 동형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론적이다. 오리엔탈리즘 개념은 서구 바깥의 제국에 적용될 때 수정 없이 사용될 수 있는가? 제국 일본은 서구의 시선을 내면화한 상태에서 그 시선을 이웃에게 재투사했다. 이 **이중의 피식민·식민 의식을 표상 분석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가 동남아시아를 표상하는 방식에도 남아 있는가.**

3. ‘순응하는 코드’의 표상 정치 — 한국의 베트남 파병

저자는 지도국과 도전국을 논한 뒤, 대다수 국가의 코드는 지도국의 프로젝트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양자택일을 반영한다고 정리한다. 그러나 순응은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상당한 표상 노동을 요구한다. 이 공백을 메우는 데 한국의 1964~1973 년 베트남 파병은 유용한 사례다. 파병의 정당화는 이 장이

¹ 팔굉일우(八紘一宇)는 '온 천하가 한집안'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이를 변형하여 국시로 사용하였다. 내선일체(황민화 교육), 대동아공영권과 함께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제시한 이중 청중 모델과 잘 맞는다. 대외적으로는 지도국의 코드를 그대로 수용한 가치 언어 — 자유 진영의 수호, 반공 연대 — 가 사용되었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의 은혜를 갚는다는 호혜성 서사와 함께 브라운 각서 이후의 외화 수입 · 건설 수주라는 물질적 서사가 병치되었다. 저자의 도식이 예측하는 것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이 장의 사례들에서는 물질적 동기가 가치 언어로 ‘번역’되어 국내외에 제시되었지만, 순응국의 경우 오히려 국내 청중을 향해 물질적 이득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레고리가 말한 비가시화의 문제도 재생산된다. 베트남 중부 지역의 민간인 희생과 그것을 기록한 위령비들은 한국의 공적 서사에서 오랫동안 부재했고, 한국군은 파병 담론 안에서 ‘보호자’로만 표상되었다. 즉 표상의 비대칭은 지도국과 피개입국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순응국과 피개입국 사이에서도 작동한다. 이 사례는 ‘순응국의 지정학적 코드는 지도국 코드의 번역인가, 아니면 국내 정치의 요구에 따라 재구성된 독자적 코드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4. 가상전쟁에서 플랫폼 전쟁으로

이 장에서 가장 빠르게 낡은 부분은 미디어 논의다. 그레고리(2004)가 진단한 문제는 고통의 비가시화, 곧 위성영상과 쌍방향 웹사이트가 전쟁을 성적표 없는 게임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가자의 사례에서 문제는 오히려 과잉가시성에 가깝다. 1 인칭 드론 시점 영상, OSINT 계정, 숏폼 플랫폼은 고통을 실시간으로, 대량으로 유통시킨다. 데어 데리안(Der Derian)이 예고한 생산과 소비의 경계 소멸은 이제 완성 단계에 있지만, 저자가 지적한 ‘편집과 해석의 우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다. 그것은 더 이상 CNN · BBC의 편성표에 있지 않고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조정 정책, 도달 제한이라는 비가시적 층위에 있다. 방송 능력의 민주화가 해석 권력의 민주화를 뜻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통찰은 오히려 지금 더 정확하다.

이는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다. 이 장의 분석 자료는 정부 문서, 영화, 잡지, 연설이었다. 표상 권력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면 지정학적 코드 연구의 아카이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알고리즘의 작동은 문서로 남지 않으며 열람도 불가능하다. 텍스트 분석 중심의 비판지정학이 이 조건에서 어떤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는가는 이 장이 열어놓은 가장 급한 질문으로 보인다.